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제2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15:1-7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55장(새 15장)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2번(새 74번)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심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광을 귀히 여겨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께 겸손히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위로부터 오는 평강과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이 삶 속에서 인격과 행실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와 왕이 되심을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증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사랑과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영적인 타락과 침체로부터 회개와 순종을 통해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하박국 3:17-19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 봉 헌(offering) 353장(새 317장)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 찬 송(Hymn) 새 620장(스크린 참조)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 후에 합동임원회로 모입니다.
3. 서진국장로님(과테말라 선교사)께서 이번 화요일(16일)에 선교지로 가시게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다음 주 친교 후에 믿음 속회로 모입니다.

<기도제목>

-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며 생명과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공동체가 되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조동천선교사님, 이성구목사님)

<이 달의 속회 적용점> 야고보서 4:11-12

성경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은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쉽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며 교회를 해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겸손과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기 전 그런 마음이 드는 자신 안에 똑같은 허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부터 고치고 변화되는 경건의 훈련을 합시다.

〈말씀묵상〉 하박국 3:17-19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 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1. 하박국 선지자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나 열매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17-18절) 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지금 나의 삶에도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2. 선지자가 자신을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시는(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19절)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 믿음은 신념과 확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신념은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이념이며 가치관이고 철학입니다. 확신은 그 신념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굳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도 이러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근거가 자신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 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사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임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여짐으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분이 주시는 것을 얻고 경험하며 누리는 가운데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갖게 되는 신념과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경험한 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신념과 확신을 붙잡고 그것을 추종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경직되고 엄격한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성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고행이나 종교적 수양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으로 진정한 자유를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부여주십니다. 나는 지금 이런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